

불교의학의 정립을 위한 시도*

—『사부의전(四部醫典)』을 중심으로

양승규

동국대 한의학연구소 초빙교수

1. 머리말
2. 『사부의전(四部醫典)』의 성립과 저자
3. 『사부의전』의 내용
4. 『사부의전』의 불교철학
 - (1) 불교적인 측면에서 본 『사부의전』
 - (2) 『사부의전』의 대승행
 - (3) 『사부의전』과 유식(唯識)사상
5. 맺음말

* 이 논문(저서)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71-A00011)

요약문

티벳의학은 티벳을 중심으로 형성된 의학체계를 말한다. 티벳은 지리적으로 인도와 중국과 국경을 이루고 있으면서, 이 두 거대한 아시아의 문화축으로부터 불교와 의학 등을 받아들였다. 이 티벳의학의 결정체가 『사부의전』이다.

티벳医学을 불교의학으로 규정하는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사부의전』을 설하는 주체가 부처님이다. 부처님께서 화현한 의생이 『사부의전』을 설하고 있다. 둘째, 의학은 오명 중의 하나다. 티벳불교의 근원처인 인도의 날란다대학은 오명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다. 따라서 여기서 전승된 의학은 불교의학이다. 셋째, 전통적으로 티벳의학은 출가자를 중심으로 전승된 의학이다.

『사부의전』에서는 의학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저기에서 불교의 실천행을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대승불교의 실천자인 보살이 오명을 배워야 하는 근거는 『보은경』에서 “만약 보살이 오명을 배우지 않는다면 결코 위없는 깨달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위없는 깨달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명을 배워야한

다”라고 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사부의전』에서는 “아프지 않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장수와 법보의 안락을 증득하기 위해”라고 하여 증상생과 결정승의 안락을 설명하고 있다.

『사부의전』에서는 대승불교 중에서 유식의 가르침과 관련이 많다. 왜냐하면 몸의 병은 마음의 병과 관련이 많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사부의전』에서는 “식이 업과 번뇌에 의해 인발되어”라고 하여, 이 식을 주석가들은 아뢰야식으로 설명한다. 또 “몸과 마음의 병은 자성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 무아인 빈 것의 의미를 오랫동안 살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서도 ‘자성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을 주석가들은 ‘소취와 능취가 다른 실질로 성립하지 않음’으로 설명하고 있다.

티벳医学을 지역적인 의학으로 고착화시키는 것은 그 가치에 대한 몰이해에 기인한다. 그렇기 때문에 티벳医学을 불교의학으로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방편으로 삼아야 한다. 보살은 오명을 통해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제어

티벳의학, 불교의학, 유식, 보살행

1. 머리말

티벳의학은 티벳을 중심으로 형성된 의학이다. 티벳은 지리적으로 인도, 네팔과 중국과 국경을 이루면서 아시아 문화의 두 축으로부터 불교와 의학 등을 받아들여 독자적인 체계를 형성했다. 티벳의학의 교과서인 『사부의전(四部醫典)』도 그 중의 하나다. 티벳은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와 불교를 받아들여 발전시킨 중국으로부터 문화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티벳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삼예(bSam yas) 종론(宗論)의 결과 인도불교를 중심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이후 인도불교뿐만 아니라 인도문화의 영향은 티벳에서 절대적이었다. 특히 인도후기불교의 여러 거장들이 티벳에 들어가 불교를 전해주었기 때문에 티벳은 자연스럽게 인도를 ‘성스러운 땅’으로 생각하고 동경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의학, 천문학 등 많은 것을 인도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렇기 때문에 티벳의학은 인도의학을 근거로 성립되었고, 인도의학은 불교와 함께 전해졌

기 때문에 티벳의학은 ‘티벳불교의학’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티벳의학은 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사부의전』을 설하는 주체가 부처님이다. 『사부의전』은 부처님이 화현한 두 선인(仙人)이 묻고 답하는 형식이다. 이것은 마치 『반야심경(般若心經)』이 부처님이 화현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과 사리불(舍利佛)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설해지는 것과 유사하다. 형식적인 것 외에도 『사부의전』에는 곳곳에 불교철학과 불교수행이 설명되고 있다.

둘째, 의학은 다섯 가지 학문인 오명(五明) 중의 하나다. 티벳에 불교를 전해준 학승들은 대부분 인도불교의 본산인 날란다(Nalanda)대학 출신들이다. 날란다대학은 불교뿐만 아니라 의학, 천문학 등 다섯 가지 학문인 내명과 외명으로 이루어진 오명은 궁극적인 진리와 세속적인 진리를 모두 설명하는 것으로서 방편과 지혜를 구축하는 보살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보살은 의방명인 의학을 배워야 한다.

셋째, 티벳의학은 전통적으로 출가자들을 중심으로 전승되었다는 점이다. 티벳사회에서 교육은 사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원에서 수학하면서 계속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던지, 아니면 의학이나 천문학 등을 공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일부는 의학 쪽으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출가자들을 중심으로 의학이 전승될 수 있었다.

『사부의전』이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사부의전』에서 이러한 불교적 관념이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가 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불교적인 이상을 구현하는 보살의 입장에서 의방명을 배우고 읽혀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보살행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부의전(四部醫典)』의 성립과 저자

『사부의전』은 티벳의학의 교과서이고, 지금도 티벳의과대학에서는 이 『사부의전』을 배우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부의전』이지만 이 『사부의전』의 성립에 여러 가지 이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 이설을 종합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인도에서 성립된 것을 티벳어로 번역했다고 보는 것이고,¹⁾ 또 하나는 티벳에서 저술된 것으로 보는 것이다. 티벳에서 저술된 것도 한 사람에 의해 저술된 것으로 보는 경우와,²⁾ 여러 사람에 의해 가필되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다.³⁾

『사부의전』의 성립에 대한 상이한 견해는 『사부의전』에 기인한 티벳의학을 바라보는 시각에 영향을 준다. 전통적으로 티벳문화는 불교의 도입과 함께 발달했고, 불교의 발생지인 인도와 경유지인 네팔의 영향을 받았다. 또 정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 접근이 용이한

중국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이와 같은 아시아의 양대 문화를 흡수하면서 티벳문화는 급속한 성장을 이룩했다. 의학도 마찬가지였다. 삼예종론 이후 티벳은 사상적 기반을 오로지 인도에만 의지했다. 불교뿐만 아니라 음악, 미술, 건축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인도적인 영향은 절대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전래된 것은 대부분 특별한 것으로 여겼다. 왜냐하면 티벳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를 제공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발흥한 나라에서 전승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은 인도에서 전승된 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의학도 인도로부터 전승받은 것이 많았고, 이 영향을 기반으로 성립된 티벳의학의 체계를 고스란히 인도에서 성립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런 점에서 『사부의전』도 실제로는 티벳인들에 의해 저술되었지만, 번역된 것으로 간주하여 오히려 『사부의전』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사부의전』의 성립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사부의전』과 관련된 의학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티벳역사는 전전기와 후전기로 양분되는 것처럼, 티벳의학사는 전전기와 후전기로 양분되고, 후전기도 티벳의학사에서 큰 업적을 남긴 5대 달라이라마를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한다.⁴⁾ 이를 좀 더 세분하여 1. 싹트는 시기(~기원후 6세기), 2. 기초를 세운 시기(6세기~9세기 중엽), 3. 발전과 논쟁의 시기(9세기 중엽~17세기 중엽), 4. 번영시기(17세기

1) dKon mchog rgyal mtshan, *Gangs can gso rig rgya mtsho'i jug ngogs*(北京: 民族出版社, 1996), p.20.

2) 山本哲士, 『チベット醫學の世界』(大阪: 東方出版, 1996), pp.73-74.

3) Ven. Rechung Rinpoche, *Tibetan Medicine*(Delhi, India: Sri Satguru Publications, 2001), p.4.

4) dKon mchog rgyal mtshan, *Ibid.*, pp.18-57.; 山本哲士, 앞의 책, pp.66-84.

중엽~20세기 중엽)의 네 시기로 구분하기도 한다.⁵⁾ 이 중에서 『사부의전』의 성립에 대한 부분은 2, 3의 시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티베트의학사에서 설명하는 것을 근거로 이 시기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실질적인 티베트의학은 쑹젠감뵤(Srong btsan sgam po)왕 재위시절부터 시작된다. 왕은 툰미삼보따(Thon mi sambhota)를 인도로 파견하여 범어를 기초로 티벳글자와 문법체계를 고안하도록 했다. 또 안정된 정치적 기반을 토대로 네팔과 중국으로부터 공주를 받아들였다. 당나라의 문성(文成)공주는 티벳으로 들어갈 때 의학서적 등도 가져갔다. 이 의서를 번역한 것이 『의학대전(醫學大全, Sman dpyad chen mo)』이다. 이 외에도 인도와 페르시아의 의학서를 종합하여 『무외적(無畏的)무기(Mi 'jigs pa'i mtshon cha)』를 편찬하였다. 티데 쪽뎨(Khri lde gtsug brtan) 왕 때에도 중국에서 금성(金城)공주가 티벳에 오면서 더욱 발전된 의학이 전했다.

티쑹데젠(Khri srong lde bstan) 왕 때에는 인도로부터 불교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여 산따락씨따와 빠드마삼바바와 같은 뛰어난 학승과 수행승이 티벳으로 들어와 인도불교를 전했다.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티벳에 전하기 위해서 티벳에서 뛰어난 집안출신의 자제 25명을 선발하여 범어도 가르치고 불교도 가르쳤다. 바이로 짜나는 빠드마삼바바(Padmasambhava)의 25명의 제자 중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제자였다. 전통적으로 티베트의학사에서는 이 바이로 짜나가 『사부의전』을 번역했다고 한다. 『사부의전』의 범어 원전

은 약 4세기에 성립했다고 하고, 티쑹데젠왕에게 봉헌되었다. 번역된 후 빠드마삼바바와 티쑹데젠왕이 살펴보고 책의 내용이 매우 심오하고, 희유하여 세상의 보배가 될 것임을 알고 당분간 지하에 매장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인도의 의사 달마라자(Dharmarāja) 등이 티벳으로 들어와 의술을 전하고, 의학서를 저술하여 의학의 발전을 도모했다. 이에 왕은 티벳 전역에서 우수한 청년을 발굴하여 의술을 가르쳐 아홉 명의 명의를 배출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유평웬덴곤보(gYu thog yon tan mgon po)이다. 유평은 라싸 근방에서 태어났다. 세 살에 아버지로부터 글자를 배웠다. 이와 함께 의학도 배워 아버지로부터 약사여래의 사다나를 받았다. 유평은 세 번 인도로 들어가 의학을 배웠다.

9세기 중에도 토번(吐蕃)왕조는 지속적으로 발전했다. 아리(mNga ris)의 하라마(IHa bla ma) 예셰외(Ye shes 'od)의 재위시절에 훌륭한 역경승 린첸상보(Rin chen bzang po)가 출현했다. 많은 불교경전과 함께 인도의 의서인 『팔지약방(八支藥方, Yan lag brgyad pa'i snying po bsdus pa)』를 번역하여, 인도의학서가 티벳으로 본격적으로 전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 그 후 뽀뽀(gTer ston) 다와웬셰(Gra ba mngon shes)가 썸예(bSam yas)에서 『사부의전』을 발굴했고, 유평썰마웬덴곤보(gYu thog gsar ma yon tan mgon po)로부터 이 『사부의전』에 대한 가르침을 들었다. 유평썰마는 쟡(gTsang)의 냥뽀(Nyang stod) 근처의 고시레탕(sGo bzhi re thang)에서 태어났다. 여덟 살부터 의학공부를 시작했다. 열두 살 때에는 록뽀뽀(Rog ston dkon cog)으로부터 『사부의전』의 가르침을 받

5) 金圭滿, 『藏醫學의 學術思想에 關한 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pp.3-31.

있다. 열여덟 살에는 인도로 유학하여 여섯 번이나 인도로 들어가 의학을 배웠다. 귀국해서는 많은 티벳인들을 죽음에서 구하고, 다수의 의학서를 저술했다. 특히 『사부의전』을 완전히 이해하고, 많은 해설서를 남겼다.

『사부의전』이 번역서가 아니고 티벳인들에 의해 저술되었다는 논의는 근래에 들어서 제기된 것은 아닌 듯하다. 14세기에 촉래남겔 보덴(Phyogs las rNam rgyal Bo don)은 『사부의전』은 다른 의서처럼 대장경에 편입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이 문제를 제기했다.⁶⁾ 뿐만 아니라 유통되는 『사부의전』은 시작 부분에서는 번역서의 형식을 찾아볼 수 있지만, 번역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역서의 말미에는 누가 번역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역서에 대한 의혹이 크게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통적으로 티벳문헌에서는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번역된 번역물의 경우에는 인도학자와 티벳의 역경가 두 사람이 공동의 작업으로 번역을 진행하고, 진행된 결과를 역서 말미에 반드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부의전』이 부처님에 의해 설해진 것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는 보다 확실한 증거를 R.E.Emmerick교수는 7세기에 생존했던 박바파(Vagbhata)의 『팔지심수집(八支心髓集, Aṣṭāṅgahrdayasamhita)』이 『사부의전』의 이부(二部) 13장 76에서 100송에서 인용된 것을 찾아냈다.⁷⁾ 그리고 이 『팔지약방』은 후전기(後傳期)의 역경승인 린첸

6) Ven. Rechung Rinpoche, Ibid., p.3.

7) Ven. Rechung Rinpoche, Ibid., p.3.

상보에 의해 번역되었기 때문에 전전기의 바이로차나와는 상당한 시대적인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사람의 손을 거쳐 유통됨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는 설명이 될 수 있다.

3. 『사부의전』의 내용

『사부의전』은 범어로 Amṛta aṣṭāṅga guhyapadesa tantra이고, 티벳어로 bDus rtzi snying po yan lag brgyad pa sang ba man ngag gi rgyud bzhi이다. 번역하면 『여덟 갈래의 감로의 핵심에 대한 은밀한 가르침인 네 탄뜨라』이다. 약사여래의 화신인 선인 의생(意生, Yid las skye)와 선인 지혜(智慧, Rig pa'i ye shes)의 문답으로, 156장, 5990계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부의전』은 근본의전(根本醫典), 논설의전(論說醫典), 요결의전(要訣醫典), 후부의전(後部醫典)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부의전』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

근본의전(根本醫典)은 지혜가 수승한 이를 위해 의학 전체의 의미인 병의 토대, 인식하는 표시, 치료하는 방법 등을 나무에 비유하여 광대한 의미를 간략하게 소개한다.

논설의전(論說醫典)은 지혜가 중간인 이들을 위해 의학 전체를 11장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1장에서는 전체를 개괄(概括)적으로 설

8) dKon mchog rgyal mtshan, Ibid., pp.5-8.

명한다. 2장에서는 몸이 발생하는 방법, 비유 본질, 정의, 몸의 작용과 갈래 몸이 사망하는 전조 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병의 원인, 조건, 병이 발생하는 방식, 정의, 갈래 등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매일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것, 때때로 행동하는 것, 일시적으로 행동하는 것 등 행위를 옳기는 방법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음식의 이치를 아는 것, 음식을 절제함, 음식을 지킴과 적당한 양을 먹음 등을 설명한다. 6장에서는 약의 맛, 소화된 후, 공능(功能), 약의 종류, 조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7장에서는 대치인 외형(外形)에 대한 것을 설명한다. 8장에서는 병이 없이 아프지 않고 머무는 것을 설명한다. 9장에서는 과실을 직접 설명하는 분별함, 위험한 계획을 과실을 통해 분별함, 버리고 얻는 것을 사구(四句)로 분별하여 병을 인식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10장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방식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과 특히 치료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다. 11장에서는 치료하는 의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설명한다.

요결의전(要訣醫典)에서는 하열한 지혜를 가진 이를 위해 의학 전체를 15장으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1장에서는 풍(風)병, 담(膽), 연액(涎液)병인 세 가지 과실과 그것이 합쳐진 병 등의 원인과 조건, 갈래, 표시, 치료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2장에서는 모든 장부(臟腑)병의 원인인 소화불량, 부종(浮腫) 등의 원인과 조건, 갈래 등을 설명한다. 3장에서는 일반적인 열, 착란의 토대를 없애는 열한(熱寒)의 핵심, 열이 지속되는 시간 등의 원인과 조건 등을 설명한다. 4장에서는 머리, 눈, 귀 입 등의 병의 원인과 조건 등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심장, 폐, 간, 비장, 위장 등의 원인과 갈래 등을 설명한다. 6장에서는 남녀의 생식기에 관련된 질병의 원인과 조건 등을 설명한다. 7장에

서는 목소리가 쉼, 식욕부진, 갈증, 땀꼭질, 호흡장애 등의 병의 원인과 조건 등을 설명한다. 8장에서는 자연적으로 생긴 염증의 원인과 조건 등을 설명한다. 9장에서는 유아의 질병 등 원인과 조건 등을 설명한다. 10장에서는 여성의 질환 일반과 갈래를 설명한다. 11장에서는 귀신의 질병 등 원인과 조건 등을 설명한다. 12장에서는 염증 일반과 갈래 등 원인과 조건 등을 설명한다. 13장에서는 중독 질환의 원인과 조건 등을 설명한다. 14장에서는 늑음을 치료하는 영양공급의 이익 등을 설명한다. 15장에서는 색욕(色慾)을 치료하는 것 등을 설명한다.

후부의전(後部醫典)은 25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것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부에서는 병을 진단하는 것으로 느끼는 맥, 보는 오줌에 대해서 설명한다. 2부에서는 병을 없애는 약의 재료, 효능 등을 다루고, 환, 탕, 산제, 시럽 등 약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한다. 3부에서는 병을 치료하는 다섯 가지 행에 선행하는 기름치료, 설사, 구토 등을 설명한다. 4부에서는 부가적인 요법으로 강약의 형태로 사혈, 뜸, 수술 등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설명한다.

4. 『사부의전』의 불교철학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부의전』은 『팔지심수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박바파의 『팔지심수집』은 인도의학사에서 중요한 문헌으로 간주되지만 불교와의 관련성은 그다지 크지 않다. 이와 같은 『팔지심수집』을 근거로 『사부의전』을 저술하면서 티벳인들은 『사

부의전』을 온전히 불교적인 것으로 탈바꿈시켰다. 그것은 불교가 삶의 전부인 티벳인들에게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사부의전』은 기본적으로 『팔지심수집』을 계승한 의학서이기 때문에 불교논서에서 보이는 것처럼 논리적인 불교철학을 기술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부의전』 곳곳에 흩어져 있는 불교철학을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몽골인으로서 티벳에 들어와 불교와 의학을 공부한 룡릭덴달(Lung rigs bstan dar, 1842-1915)의 『사부의전전변(四部醫典詮辨, rGyud bzhi'i mtha' dpyod)』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논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사부의전』의 불교철학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불교적인 측면에서 본 『사부의전』

룡릭덴달의 『사부의전전변』은 『사부의전』을 기본적으로 불설로 간주한다. 그렇다고 해서 『사부의전』 전체를 불설이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존귀하신 썬마(gSar ma)께서 이 『사부의전』에 덧붙였다면, 덧붙이기 전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느 정도이고, 덧붙인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면⁹⁾”이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사부의전』은 불설에 유평웬덴곤보 썬마에 의해 부가되어 완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탄뜨라는 거의 대부분이고, 마지막 두 탄뜨라는 부분적인 것을 말씀하셨

9) Lung rigs bstan dar, 『四部醫典詮辨(rGyud bzhi'i mtha' dpyod)』(甘肅民族出版社: 西寧, 2008), p.85.

다¹⁰⁾라고 답한다. 이것이 『사부의전』을 보는 티벳학자들의 기본적인 시각이다. 전통적으로 티벳인들은 경전과 논서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한다. 이것은 불제자들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의학서에서는 전승된 가르침에 대한 신뢰는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설이라고 설해져 있는 『사부의전』을 불설이 아니라고 의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탄뜨라에서는 기본적인 골격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지자이신 부처님께서 충분히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사부의전전변』에서는 만약 『사부의전』이 불설이라면 부처님 재세시 언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문제에서부터, 현교와 밀교 어디에 속하는가 하는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부의전』을 불설로 보기보다는 바이로짜나에서부터 유평웬덴곤보 닙마(snying ma)와 썬마(gsar ma)를 거쳐 완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사부의전』이 불설이 아니라고 해서 『사부의전』이 가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사부의전』을 통해서 불교적인 개념을 유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오히려 티벳에 불교가 전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에 티벳인들이 불교를 통해 어떻게 의학적인 체계를 세우려고 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수 있고, 다시 불교 의학을 정립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바램과도 부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부의전전변』에서 설명하고 있는 다양한 논

10)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85.

의도 불설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만 제외하면 불교적인 시각에서 의학을 본다고 하는 점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씀하신 세존의 이 『사부의전』은 내용과 설하는 방식을 통해 마지막 말씀인 광분별법(廣分別法)에 속하는 마지막법륜이다”¹¹⁾라고 하는 설명도 『사부의전』은 마지막법륜에 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마지막법륜에 상응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인도불교의 전통에서 의학은 불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오명(五明) 중에서 첫 번째가 내명(內明)인 불교학이고, 의방명(醫方明)은 의학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본다면 의방명은 내명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방명의 이 『사부의전』을 불설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명 중에서 내명인 불교학을 제외하고는 의왕명(醫旺明)인 의학, 인명(因明)인 논리학, 성명(聲明)인 문법학, 공교명(工巧明)인 기술학의 넷은 내외 공통이기 때문이다”¹²⁾고 하는 주장도 제기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잘못이 없다. 내명 외에 사명(四明)은 일반적인 것이어서 내외의 공통된 명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의방명의 『사부의전』은 … 대승의 도와 결과의 체계를 모두 설명하기 때문에 내외와 공통이 되는 오류가 없기 때문이다”¹³⁾고 하여 일반적인 의학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그 중에서도 대승의 도와 결과를 남김없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외명이 아니라 내명의 범주에 넣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티벳불교가 지향하는 불교가 대승

불교이기 때문에 『사부의전』에서도 당연히 대승불교의 핵심인 수행도와 그 결과가 설명될 수밖에 없다.

(2) 『사부의전』의 대승행

『사부의전전변』에서는 『사부의전』을 삼전법륜 중에서 마지막 광분별법륜(廣分別法輪)에서 설해진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대승불교를 주제로 설명한다고 본다. 대승불교를 주제의 핵심으로 설한다고 하는 것은 대승행을 설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승행은 보살의 행이다. 오명 중에서 특히 의방명은 보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왜냐하면 보살은 중생의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찾는 이들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명 중에서 의방명은 보살의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다.

『사부의전전변』에서는 보살이 오명과 그 중에서 의방명을 배워야 하는 것을 『보은경(報恩經)』에서 “만약 보살이 오명을 먼저 배우지 않는다면 결코 위없는 깨달음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 따라서 위없는 깨달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오명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보살이 무엇 때문에 의방명을 배워야 하는가 하면, 중생들이 404가지 나쁜 병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들을 자애와 비민하기 때문에 중생들이 믿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와 같이 병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그와 같이 좋아하는 마음을 일으켜 부처님을 떠올리고, 대비로 중생을 저쪽으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보살은

11)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11.

12)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p.19-20.

13)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20.

의방명을 배워야 한다”라고 설한 것을 근거로 한다.¹⁴⁾ 『보은경』에서는 오명을 배워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오명을 배우지 않으면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보살이 추구하는 가장 큰 이상인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과 오명을 배우는 것이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언급한다. 왜냐하면 보살이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편이 필요하고, 다양한 방편을 통해 공덕을 쌓고 궁극적으로 진소유성(盡所有性)과 여소유성(如所有性)을 증득한다는 점에서 오명을 아는 것과 무상정등정각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 의방명은 중생들의 육체적인 고통을 없앤다는 점에서 가장 실질적이면서 효과적일 수 있다.

룽릭덴달은 『사부의전전변』에서 오명을 배워야 하는 이유와 오명 중에서 의방명으로 『사부의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것은 근기가 뛰어난 제자들에게는 뛰어난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뛰어나고, 설명하는 정도를 위주로 할 때에는 심오한 이공(二空)의 진여, 구경의 밀의를 위주로 할 때에는 연기의 진여와 광대한 대승의 도과(道果)를 직간접적인 일반의 방식으로 설명할 것의 핵심으로 설명한다. 위없는 밀교의 성숙과 해탈의 도과를 여러 갈래로 은밀한 방식으로 설명하기 때문에 핵심이고, 미묘한 해탈인 안주하지 않는 열반 또는 색신과 범신의 쌍운의 몸을 구경의 밀의로 설명하기 때문에 미묘하다. ‘아프지 않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장수와 범보의 안락을 증득하기 위해’라고 하여

14)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12.

일시적인 것과 구경의 가르침으로 섭수한 네 가지 부류의 목적을 하나의 법으로 증득하는 방편이 이 탄트라에서 일 뿐 다른 학문에서는 없애 수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탈과 일체지(一切智)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 의방명 등 오명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¹⁵⁾

룽릭덴달은 이상에서 의방명과 함께 오명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설명하는 방식, 내용, 목적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설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근기가 뛰어난 제자들에게는 뛰어난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뛰어나고”라고 하여 근기를 헤아려 설명하는 방법을 달리 한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현교에서는 이공(二空)의 진여와 연기의 진여, 광대한 대승의 도과를 직간접적으로 설명하고, 밀교에서는 위없는 성숙과 해탈의 도과를 은밀하게 설명한다. 목적에는 일시적인 안락과 구경의 안락을 성취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 이 두 가지 목적을 증상생(增上生)과 결정승(決定乘)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목적을 룽릭

15) 'di ni gdul bya dbang po rab kyi yang rab la gsungs pas rab dang / bstan tshod kyi dbang du byas na zab mo gnyis stong gi de kho na nyid dam dgong pa mthar thug gi dbang du byas na zab mo rten byung gi de kho na nyid dang / rgya che ba theg chen gyi lam 'bras rnam shugs ci rigs pa'i tshul gyis bstan bya'i gtso bor byas nas bstan cing / gsang sngags bla med smin grol gyi lam 'bras bu yan lag dang bcas pa sbas don du byas nas bshad pas gtso bo dang / gya nom pa'i thar pa mi gnas pa'i myang 'das sam chos gzugs zung 'brel gyi sku nyid dgong pa mthar thug tu bstan pas gya nom pa dang / mi gnas dang na ba gso ba dang / tshe ring chos nor bde ba sgrub pa'i phyir / zhes pas bstan pa'i gnas skabs dang mthar thug gis bsdu pa'i dgos pa sde bzhi chos gcig gis sgrub pa'i thabs rgyud 'di kho na ma gtogs rig gnas gzhan la med pas phul du byung pa yin pa'i phyir / des na thar ba dang thams cad mkhyen pa'i don du gnyer ba rnam kyis gso ba rig pa sogs rig pa'i gnas lnga la nges par slob dgos pa yin te/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p.11-12.

뎨달은 “아프지 않고, 아픈 것을 치료하고, 장수와 범보의 안락을 증득하기 위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프지 않고, 아프면 치료하고, 적절한 섭생으로 장수하는 것은 증상생이고, 이를 바탕으로 범보의 안락을 증득하는 것이 결정승이다. 결정승은 일시적인 안락이 아니다. 구경의 안락이다. 이 구경의 안락을 성취하면 윤회에서 벗어난다.

(3) 『사부의전』과 유식(唯識)사상

『사부의전』은 여덟 가지 치료할 대상과 치료하는 방법을 주로 설명하지만, 불교의 존재론, 수행론, 결과론의 체계를 여러 곳에서 설명한다.¹⁶⁾ 이것은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대부분 후전법륜(後轉法輪)의 의도인 유식(唯識)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몸의 병은 마음의 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고, 마음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마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마음에 대한 불교적인 문헌들을 보게 되고 그것이 『사부의전』 곳곳에 직간접적으로 언급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사부의전』이 성립되는 시기인 전전기와 후전기의 초기에는 체계적으로 유식문헌들이 티벳에 전래되어 번역되고 있고,¹⁷⁾ 『사부의전』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삼에사원은 산타락씨파(Sāntarakṣita)와 까말라쉴라(Kamalaśīla)와 같은 유가행중관학파의 거장들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유식사상을 받아

16)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53.

17) 袴谷憲昭, 「チベットにおける唯識思想研究の問題」, 『東洋學術研究』 第21卷 第2号, 東洋哲學研究所, 1982, p.145.

들이기 쉬울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사부의전』이 뎨뜨라란 점에서 유식사상을 기반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식의 입장에서 중생이 결생하는 것과 병의 직간접적인 원인과 이를 없애는 방법을 해명한 것이다. 먼저 결생하는 방식을 『사부의전』에서는

첫째에는 부모의 정혈에 허물이 없고,

식(識)이 업과 번뇌에 의해 인발되어

다섯 가지 요소가 모이는 것이 자궁에 형성되는 원인이다

라고 설명한다.¹⁸⁾ 『사부의전』의 주석가들은 대부분 여기서 말하는 식을 아뢰야식으로 본다.¹⁹⁾ 『사부의전전변』에서도 “습기에 의해 인발된 아뢰야식을 결생하는 주체로 설명한다. ‘지(地)에서 살과 뼈, 코와 냄새가 생긴다’고 하는 등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내치와 육전식의 대상이 정혈과 마음 셋의 부분이 되는 오대종에서 생기는 것이다. 다른 생에서 익히고 섞인 습기의 힘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저절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방식이 생긴다고 설명한다.”²⁰⁾라고 본송의 의미를 주석하는 것에서도 식을 아뢰야식으로 설명한다. 아뢰야

18) 宇妥 元丹貢布 等著, 李永年 譯, 『四部醫典』(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p.18.

19) sKyen pa tshe dbang, *mKhas dbang skyem pa tshe dbang mchog gis mdzad pa'i rgyud bzhi'i 'grel pa bzhugs so* (New Delhi: Bod gzhung sman rtshis khang, 1997), p.117.

20) bag chags kyi drangs pa'i kun gzhi nyid nying 'tshams sbyor pa bor bshad pa dang / sa las sha dang rus pa sna dri bskyed ces sogs kyi don 'chad pa ni nang gis skye mched rnams dang 'jugs shes drug gi yul rnams khu khrag sems gsum gyi cha shas su gyur pa'i 'byung pa lnga las skyes shing / skye ba gzhan du goms shing 'dres pa'i bag chags kyi dbang gis rang rang dga' ba la rang bzhin gyis 'jug pa'i mnam pa sna tshogs su byung par bshad pa/ Lung rigs bstan dar, 『四部醫典詮辨』, p.54.

식은 일시적으로 단절되지 않고, 모든 습기가 물들이는 토대이고, 무부무기이지만, 육전식 또는 육식은 증상연인 안이비설신의근을 토대로 색성향미촉법 등의 대상을 인식하는 인식이기 때문에,²¹⁾ 이 식을 ‘의식(意識)’으로 번역하는 것은²²⁾ 『사부의전』의 주석가들이 보는 의견이 반영된 역어라고 보기 어렵다.

병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본송에서

몸과 마음의 병마는 자성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무아인 빈 것의 의미를 오랫동안 살펴보아야 한다.

라고 설명한다.²³⁾ 본송의 의미는 일차적으로 몸과 마음의 병은 자성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생길 수 있고 없어질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무아인 빈 것의 의미를 살펴보지 않으면 병마가 생기고, 이를 살펴보면 병마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부의전전변』에서는 ‘자성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살펴보는 것’을 “소취와 능취가 다른 실질인 것에서 자성으로 성립하지 않음을 깨닫는 것을 살펴보는 것”²⁴⁾이라고 주석하여 ‘무아인 빈 것’을 유식의 입장에서 이상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 이것은 유식에서 일체법을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의 삼성으로 설명하는 것을 근거로 한다. 『사부의전전변』에서는 삼성에 대해 정확한 설명을 부가하고 있다.

21)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55.

22) 宇妥 元丹貢布 等, 『四部醫典』, p.18.

23) Lung rigs bstan dar, 『四部醫典證辨』, p.56.

24) gzung 'dzin rdzas gzhan du rang bzhin gyis ma grub par rtogs pa'i lta ba la dgos so /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56.

변계소집성은 분별로 증익한 부분이다. 사람에 대해 분별로 증익한 것이 사람의 자아이고, 능소를 다른 실질로 분별하여 증익하는 것과 같은 것이 법의 자아이다. 의타기성은 인연에 의해 의타기성이 되는 것이다. 나누면 청정한 의타기성과 청정하지 못한 의타기성 둘이다. 첫째는 둘로 현현하는 것의 영향이 없는 것이다. 성자의 등지혜(等至慧)와 같은 것 또는 후득(後得)의 선법이다. 둘째는 습기를 가진 능소이고, 둘로 현현하는 인식과 고온(苦蘊)과 같은 것이다. 의타기성은 결정승의 의미이다. 능소가 다른 실질이 빈 진여이다. 이생의 대상을 근거로 변계소집성, 성자의 후득의 대상을 근거로 의타기성, 진여를 근거로 원성실성을 설정한다.²⁵⁾

유식에서는 일체법을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의 삼성으로 구분한다. 변계소집성은 이생인 중생이 분별로 증익한 부분이다. 증익된 대상이 인아(人我)와 법아(法我) 둘이다. 인아와 법아를 증익하면 증익한 대상에 대해 집착이 발생한다. 이런 집착 등에서 업이 생기고, 그 업의 결과로 중생들은 윤회하고, 윤회하면서 생노병사의 고통을 받는다. 이런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 삼성에 이어 삼무자성

25) kun btags ni rtogs pas sgro btags pa'i cha ste / gang zag tu rtogs pas sgro btags pa gang zag gi bdag dang / gzung 'dzin rdzas gzhan du rtog pa'i sgro btags pa lta bu chos kyi bdag go / gzhan dbang ni rgyu rkyen gyis gzhan dbang du gyur pa ste / dbye na dag pa'i gzhan dbang dang / ma dag pa'i gzhan dbang gnyis / dang po ni / gnyis snang gi bslad pa ma zhugs pa ste / 'phags pa'i mnyam bzhag ye shes lta bu'm / rje thob dge ba'i chos so / gnyis pa ni / gzung 'dzin bag chags can te gnyis snang gi blo dang sdug bsngal gyi phung bo lta ba'o / yongs grub ni / nges lugs kyi don te gzung 'dzin rdzas gzhan gyis stong pa'i de bshin nyid do / de so skye'i yul la ltos nas kun btags / 'phags pa'i rjes thob kyi yul la stos nas gzhan dbang / de bzhin nyid la ltos nas yongs grub tu bzhag go /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55.

을 시설한다. 상을 증익하는 변계소집성은 상무자성이고, 자체로 생기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의타기성은 생무자성이고, 궁극적인 진리인 승의에서는 자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승의무자성이다.

삼무자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 무명이다. 본송에서는 “무명의 착각한 힘으로 윤회에서 유전한다”라고 한다.²⁶⁾ 유전하는 주체는 식 즉 아뢰야식이지만, 무명에 의해 업과 번뇌가 끊어지지 않고 증장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유정들은 쉽없이 유전하면서 생로병사의 고통이 끊임없이 생긴다. 그렇지만 마음의 자성은 청정하기 때문에 “해가 되는 여덟 가지 허물을 구분하는 것과”라고 하고,²⁷⁾ 무명을 없앨 수 있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아프지 않고 머무는 것은”이라고 한다.²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본송에서는 “방법과 방법에서 생긴 것에서 생기는 것으로 연결된다”라고 하여²⁹⁾ 병을 치료하는 방법과 치료하는 것을 연결하여 결국 병에서 벗어나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설명한다.

5. 맺음말

『사부의전』은 티벳에 전승되어 오늘날까지 계승 발전되고 있다. 『사부의전』은 그 성립에 여러 가지 이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

부의전』은 인도불교의학의 연장선상에서 지금까지 전승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부의전』의 성립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부의전』이 인도에서 성립된 것을 번역한 것이든, 아니면 『팔지심수집』을 기초로 하여 티벳에서 형성된 것이든 상관없이 인류가 남긴 중요한 의학체계의 하나임은 틀림없다. 지금도 『사부의전』을 기초로 한 티벳의학은 티벳 뿐만 아니라 히말리야의 여러 곳에서 중요한 의학체계로 전승되고 있고, 미국 등에서는 대체의학의 일부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부의전』에서는 그 궁극적인 지향점이 불교적인 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인들에게는 중요한 의학전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티벳의학을 통해 단절된 불교의학의 전통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왜냐하면 티벳의학은 날란다대학을 중심으로 불교의학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이 의학의 전통에서는 마음을 중심으로 몸을 조절하여 궁극적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완벽한 전통을 설명하기 때문이다.

26)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60.

27)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61.

28)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61.

29) Lung rigs bstan dar, 앞의 책, p.62.

참고문헌

- 金圭滿, 『藏醫學의 學術思想에 關한 研究』(동국대학교 대학원, 2002)
- 山本哲士, 『チベット醫學の世界』(大阪: 東方出版, 1996)
- 宇妥 元丹貢布 等著, 李永年 譯, 『四部醫典』(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3)
- sKyen pa tshe dbang, *mKhas dbang skyem pa tshe dbang mchog gis mdzad pa'i rgyud bzhi'i 'grel pa bzhugs so*(New Delhi: Bod gzhung sman rtshis khang, 1997)
- dKon mchog rgyal mtshan, *Gangs can gso rig rgya mtsho'i jug ngogs*(北京: 民族出版社, 1996)
- Ven. Rechung Rinpoche, *Tibetan Medicine*(Delhi, India: Sri Satguru Publications, 2001)
- Lung rigs bstan dar, 『四部醫典詮辨(rGyud bzhi'i mtha' dpyod)』(西寧: 甘肅民族出版社, 2008)

A Trial to Establish Buddhist Medical Science through the Four Tantras

Yang, Sung-kyu

Research professor of

Research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Tibetan Medicine is a medicine which succeeded and developed in Tibet and other Himalayan regions. So Tibetan medicine is one of the regional medicine in Asia, but we Buddhists regard it as a Buddhist medicine for several reasons. First, the basic Tibetan medical text, The Four Tantras was explained by the medicine Buddha. So the Buddha is the main source of all knowledge pertaining to Tibetan medicine. Second, the science of medicine is one of the five sciences. These five sciences were taught and studied in Nalanda University in India, and this tradition was brought to Tibet. Third, Tibetan medicine was mostly promoted by the Buddhist monks.

When we examine the Tibetan medical systems, the medical authors explain Buddhist practices here and there in the Four Tantras. In general bodhisattvas who practice the

mahāyāna teaching must know the five sciences, such as the sciences of medicine, language, dialectics, mechanical arts and Buddhism. By studying and learning these bodhisattva can accumulate merits and wisdom. Through this practice bodhisattvas achieve the Buddhahood. So learning the science of medicine is prerequisite for the bodhisattvas.

Also we can find many mind only teachings which a main stream in Mahāyāna buddhism in the Four Tantras. There might be many reasons. One of the possible reasons is that knowing about our mind is essential to cure the illness of the mind and body. This is because the body and the mind are closely connected, and this mind is regarded as the vijñāna in Buddhism. In the Four Tantras it is written: “This vijñāna is driven by karma and klesa.” According to the commentators of the Four Tantra this vijñāna is explained by the ālaya vijñāna.

Today Tibetan medicine is popular around the world. So it's not a regional medicine any more. Also we have to work more to establish Buddhist medicine through Tibetan medicine. This is because in a Buddhist view point we regard medicine as a method of full enlightenment, not just science.

Key Word

Tibetan medicine, Four Tantra, Buddhist medicine

✎ 투고일자 2012.3.14 | 심사일자 2012.4.5 | 게재확정일자 2012.4.9

高麗에 전래된 『開寶藏』에 관한 研究*

유부현
대진대학교

- I. 緒言
- II. 大藏經 관련 기록의 검토
- III. 『開寶藏』의 刊行과 傳來
- IV. 結言

* 이 論文은 2012학년도 대진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